

釜山地域의 朝鮮時代 歲時 辟邪儀禮文化

황 경 숙

(부경대 국어국문학과)

차 례

I. 들어가기

II. 세시 벽사의례문화의 제 양상

1. 공동체 의례

1) 매굿

2) 거릿대제

2. 가정의례

1) 방매귀

2) 문첩벽사의례

3) 직성풀이와 삼재풀이

4) 기타 세시액막이

I. 들어가기

민속문화란 기원적으로는 개인적인 산물이었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민간인들에 의해 널리 수용되고 지속적으로 재창조의 과정을 지녀온 집단의 문화라 할 수 있다. 그러하기에 지역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발전적 계승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 민속 문화에 내재해 있는 문화적 특징과 전통성에 보다 천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벽사의례(辟邪儀禮)란 재해와 질병의 근원이란 관념되는 부정한 귀류(鬼類)·사귀(邪鬼)·사기(邪氣)·음기(陰氣)등을 퇴치하고자 하는 주술 종교적 의례를 통칭한다. 제액초복(除厄招福)을 강구하고자 하는 벽사의례는 인간의 한계와 예측 불가능한 자연변화에 따른 생존의 위협과 심리적 불안감을 초자연적인 힘이나 존재에 의존하여 극복하고자 하는 원초적 욕구와 현실적 이해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고대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민속제사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글에서는 부산지역에 전승되고 있는 민속문화의 연원과 특징을 살펴보기 위한 일환으로 조선시대 민속문화 중 민속의례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세시벽사의례의 전통성과 의례적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조선시대 민간에서 행해진 벽사의례 중 특히, 매 해 일정하게 정해진 날이나 시기에 관습적으로 반복해온 세시벽사의례에 주목하고자하는 연유는 세시의례란 의례 주체자들의 삶을 형성해온 자연적, 지리적, 역사적, 사회적 제 여건과 밀접한 관련 하에 생활의 절실한

필요와 염원을 바탕으로 관습화된 주기전승물이기 때문이다.

조선시대 부산지역에서 행한 세시벽사의례와 관련한 문헌자료는 형성하기 이를 데 없다. 그러나, 보편적 기층문화로서의 세시의례의 일반적 특성과, 현전하는 세시벽사의례의 전통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본다면, 미약하나마 조선시대 부산지역에서 행해져온 세시벽사의례의 일반적 양상과 지역적 특성을 추출해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고에서는 문헌자료에 기재된 조선시대 세시벽사의례 관련 사료들을 취합하여 역사학적 연구방법으로 분석·종합하되, 때로는 현전하는 관련 민속자료를 보조적으로 활용하여 조선시대 세시벽사의례의 제 양상과 의례적 특징 및 전승기반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세시 벽사의례문화의 제 양상

1. 공동체 의례

조선시대 각 마을 단위에서 공동체 의례로 행한 세시벽사의례의 대표적인 사례로 매굿과 거릿대제를 들 수 있다. 고대 우리 고유의 악인 매악에 근원한 매굿은 매해 정초 마을 풍물패들이 각 가정을 돌며 지신(地神) 및 가신(家神)을 위무하고 잡귀잡신(雜鬼雜神)을 물리치는 것으로 고려시대 관부에서 범국가적 의례로 시행한 계동대나례(季冬大儺禮)와 상응하며, 신라시대 압구제의 민속적 변형이라 할 수 있는 거릿대제는 질병과 재해의 근원이라 여기는 무주고혼 즉 여귀를 위무하고 풀어먹임으로서 재액을 미연에 막고자 하는 것으로 조선시대 관부에서 국가적 의례로 제도화한 여제(癘祭)에 상응한다

할 수 있다. 매굿과 거릿대제는 유교의 불양의례(祓禳儀禮)인 나례(儺禮)와 여제(癘祭)에 상응하는 우리 고유의 전통적 벽사의례로 특히 주목되는데, 이 장에서는 현전하는 매굿과 거릿대제를 중심으로 조선시대 부산지역에서 행해져온 매굿과 거릿대제의 제의적 특성과 민속문화적 의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매굿

매굿은 매해 정초 당산제를 모시고 난 뒤 풍물패들이 풍물을 치며 각 가정에 들러 가택신들에게 축원하고 집안 구석구석에 있을 지도 모를 부정적인 귀류(鬼類)와 사기(邪氣)를 물리치는 의식을 행하는 일종의 벽사진경(辟邪進慶)적 놀이를 말한다. 매굿은 고대 우리 고유의 벽사의례인 매악에 근원을 두고 있는 것으로¹⁾, 제무(祭舞)의 원형은 귀신의 영을 받들고 사악한 정령이나 귀류들을 물리치기 위해 방울과 북 같은 주구(呪具)를 가지고 집단가무를 행한 마한의 농공시 필기의 벽사제무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소위 민간나(民間儺)라 지칭할 수 있는 우리고유의 구귀축역의식(驅鬼逐疫儀式)인 매굿은 고려시대 관부에서 중국의 나례를 유입하여 범국가적 의례로 정립시킨 이후 중국의 나례 및 관련 주술신앙과 습합하면서 다채롭게 전승되었는데, 특히 매굿의 복식이나 잡색놀이 및 매악의 군악적 놀이형태는 중국 벽사의례인 나례의 규칙을 일부 수용한 사례라 할 수 있다.

민간나인 매굿에 대한 문헌 자료는 상층의 나례 기술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약하다. 관련 문헌자료에 의하면 매굿은 고려시대²⁾에 비

1) 매악과 매굿의 상과성에 대해서는 선행연구에서 논급한 바 있다. 황경숙, 『한국의 벽사의례와 연희문화』, 월인, 2000, 19-28면 참조).

2) ○年除夜喜驅儺 雜坐兒童笑語譁 (李穡, 『除夜』, 『牧隱先生文集』卷二). ○亥末已終於卯臘 子初方啓戊辰春 鼓聲不絕鄉儺盛 驅逐精邪福慶臻 (元天錫, 『除夜』, 『耘

로소 세말의 세시벽사의례로 정착되었던 것으로 나타나나, 당시 행해졌던 매굿의 연희주체의 성격은 물론 규칙적 특성은 전혀 알 수 없는 실정이다.

고려시대 세말 세시벽사의례로서 정립되어 시행되었던 매굿의 전통은 조선시대로 이어지는데³⁾, 조선시대의 매굿은 각 지역에 전승되고 있던 전통 연희를 수용하여 오락적인 요소가 강화되면서 민간의 대표적인 민속연희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다음은 조선시대 각 지역에서 행한 매굿의 전승양상들을 가름해 볼 수 있는 문헌자료들이다.

①논어 향인나례는 방상씨가 맡아 축귀한다.…… 동속에서는 혹 매귀라고 말하고, 또는 초나·타귀·금고(一名 乞粒, 一名 乞工)라고 말하니, 이 금고의 출입이 오로지 우스갯짓이라 승려가 할 만한 일이 아닌 것이다.⁴⁾

②한해의 마지막 날을 곧 재일이라고 한다. 옛날에는 역귀를 쫓는 나례가 있었는데, 지금도 세상에서 두루 행하고 있으며, 이밖에 각 지방의 풍속에 따라 각종 연희가 베풀어지고 있다.⁵⁾

谷行錄』卷三). ○參星斗轉夜將晨 逐鬼人聲動四隣 燈火今宵堪守歲 烟花明日又逢春 (元天錫, '除日曉起', 『耘谷行錄』卷四). ○驅儺處處鼓如雷 春色遙隨斗柄回 (鄭摠, '丙寅年除夜', 『復齋集』卷上).

- 3) ○驅儺結隊夜將晨 金鼓喧喧動四隣 萬斛窮愁隨勢去 一場歎嘆入春新 (蘇世讓, '迎祥', 『陽谷先生集』卷一). ○驅儺厭喧鬧 餽歲喜經過 (蘇世讓, '甲寅除夕', 『陽谷先生集』卷七). ○金鼓連村鬧 驅儺聚小兒 (蘇世讓, '丙辰除夕', 『陽谷先生集』卷七). ○鳴鐺格鼓競驅儺 假面朱衣十百多 (蘇世讓, '間儺', 『陽谷先生集』卷八). ○換帖開千戶 驅儺動四閭 (申光漢, '除日立春', 『企齋集』卷二). ○爆竹驅儺處處 羨他兒輩喜無眠 (周世鵬, '次東老除夜吟', 『武陵雜稿』卷二). ○爆竹儺鐺競錢年 喧喧人語九街連 (吳竣, '除夕次 白沙相公韻', 『竹南堂稿』卷四, 七言律詩下).
- 4) 論語鄉人儺(音那驅疫)禮 方相氏掌逐鬼…… 東俗或曰埋鬼 又曰儺儺 又曰打鬼 又曰金鼓(一名乞粒 一名乞工) 此金鼓出入全是戲態 非緇衣者所爲也 (黃道助, 『傳, 西山大師陣法軍鼓』, 海南文化院, 1991, 21면).
- 5) 歲終之日 卽謂除日 古有儺禮 今天下通行 其他雜戲 各從土俗 (李植, '答倭人問目', 『澤堂先生別集』, 卷一).

③제주도 풍속에 대체로 산·늪·냇물·언덕·물가·평지·나무·돌 등이 있는 곳에다 고루 신의 당을 만들어 놓는다. 그리하여 매년 설날부터 정월 보름까지 무격이 신독을 받들고 나희를 행한다. 징과 북을 울리며 안내하여 동리로 들어가면 사람들이 다투어 재물과 돈을 내놓으며 굿을 한다. 이것을 화반이라고 한다.⁶⁾

④관북의 풍속에 빙등을 베풀어 놓는데, 마치 위주 안에 기름심지를 해 박은 것 같다. 그것을 켜놓고 밤 새워 징과 북을 치고 나팔을 불면서 나희를 행한다. 이를 청단이라고 한다.⁷⁾

⑤웅천 풍속에 웅산 신당으로부터 마을 사람들이 매년 4월에 신을 모시고 하산하여 징과 북을 울리면서 여러 가지 놀이를 한다. 그러면 원근 사람들이 다투어 와서 제사를 지낸다. 10월에도 이렇게 하는 것으로 상례를 삼는다.⁸⁾

①에서 우선 주목할 사항은 ‘매굿’에 대한 다양한 이칭들이다. 조선시대 민간에서는 ‘매굿’을 달리 ‘매귀[매구]’·‘초나’·‘타귀’·‘금고’·‘결립’·‘결공[결궁]’ 등으로 다양하게 지칭하였음을 알 수 있다. 아직, 학계에서는 매굿에 대한 지역적 이칭에 대한 논의가 정치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이지만, 현지조사에 의하면 부산 경남지역의 경우 매굿의 이칭으로 ‘매귀[매구]’·‘결립’이라는 용례가 널리 전승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①에서 매굿을 일러 ‘우스갯짓’이라 하였다. 이는 매굿이 매굿 본연의 제의성을 완전히 상실하였음을 지적한 언사이기 보다는 ②에서

6) 濟州俗 凡於山藪池丘陵墳衍木石 俱設神祀 每自元日至上元 巫覡擎神籙 作儺戲 鉦鼓前導出入閭里 民人爭捐財錢 以賽神 名曰花盤 (洪錫謨, 『東國歲時記』 正月 元日條).

7) 關北俗 設冰燈 如圍柱中安油柱 以達夜 鳴鉦鼓 吹喇叭 設儺戲 號青壇 (洪錫謨, 『東國歲時記』 12月 除夕條).

8) 熊川俗 熊山神堂 土人每四月迎神下山 陳鍾鼓雜戲 遠近爭來 祭之 十月又如之 以爲常 (洪錫謨, 『東國歲時記』 4月 月內條).

지적인 바, ‘지역의 풍속에 따른 각종 연희’가 매굿으로 수렴되어 벽사의례에 병연되었던 잡색놀이와 같은 판굿이 상대적으로 강화된 시대적 변화를 지적인 언사로 생각된다. 문제는 조선시대 제의이자 곧 놀이이기도 했던 매굿이 점차적으로 지역민이 향유하여왔던 민속연희를 수용하여 제의적인 요소보다는 오락적인 요소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해 갔다는 점이다. 그리하여 조선시대에는 각 지역마다 매굿이 ③, ④, ⑤와 같이 지역색을 강하게 띄는 지역문화로 거듭나게 되었는데, 조선시대 매굿의 지역문화로서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③은 제주도 지방에서 행한 매굿이다. 이 지방의 경우는 무당이 신독(神籙)을 모시고 나희를 베풀면서 가가호호 돌며 축역의식을 행하는 것으로 현전하는 풍물패의 매굿과 일치하고 있다. 다만 축역의 주재자가 무당으로서 그들의 춤이 나희의 주조를 이루었을 것인데, 무당이 신독을 앞세워 나희를 거행한 것은 군나(軍儺)의 형식을 일부 차용한 결과로 현전하는 민간의 매굿패들이 축귀를 하기 위해 가가호호 방문할 때 그들의 행렬 앞에 영기와 농기를 세우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그리고 제주도 지방에서는 무당의 주재 밑에 행하는 정초 벽사의례를 화반(花盤)이라 칭한다고 하였다. 화반에 대해서 현용준은 ‘굿둑’ 또는 ‘굿돌다’의 한자표기라 한 바 있다.⁹⁾ 그의 견해에 따른다면 화반은 매굿의 지역적 이칭으로 민간에 계승된 굿이름이 아니라, 한 학자들에 의해 붙여진 후대적 명칭에 불과한 것이라 할 수 있다.

④는 관북지방에서 행한 매굿이다, 제야에 빙등(氷燈)을 설치하고 징과 북을 울리고 나팔을 불면서 밤새워 나희를 벌여 축귀행사를 거

9) 玄容駿은 ‘花’는 ‘굿’의 유사음인 𪛗에서 借字한 것으로 ‘盤’은 ‘돌리다’의 의미로 해석하여 ‘화반’을 ‘굿둑’ ‘굿돌다’라는 말의 한자표기일 것이라 주장하였다(『花盤考』, 『韓國民俗學』 9輯, 韓國民俗學會, 1976, 92면).

행했다는 것인데, 빙등을 만들고 축역하는 습속은 황해도 봉산지역에서도 나타난다.¹⁰⁾ 황해도 봉산 관아에서 나례를 베풀 때, 빙등을 설치하고 매굿을 행한 것은 그 지역 민간에 계승되어온 전통 매굿에 근원한 것으로 이를 우리나라 북방지역의 정통적 매굿 형식으로 상정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함경도 지역에서 매귀행사를 청단(靑壇)이라 칭한다고 하였는데, 청단이 민간에 전승되어온 벽사의례의 민속적 명칭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 다만, 홍석모가 민간의 매굿을 나희라 기술하고, 당산신을 나신(難神)의 유(類)라 기술한 점¹¹⁾으로 볼 때, 자의적인 명칭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⑤의 웅천지역에서는 ③과 달리 토착민이 4월과 10월에 직접 당산제를 거행해 수호신의 영(靈)을 받들고 매굿을 거행하는 것으로 당산제와 연계되어 거행되는 매굿의 전통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당산신(=산신)은 곧 재액을 막아주는 골매기신으로서 중국 민간 나례의 나신과 비견된다. 민간인이 주재자가 되면서 매굿은 점차로 예능화되어 풍물굿·농악 등으로도 불리며 민간 예능으로 자리잡아 갔다. 이 가운데 민간에 가면을 쓰고 축역하는 것은 고대로부터 전승되어온 벽사가면회의 영향이라 할 수 있으며 ⑤에서 지칭하고 있는 잡회는 오락적 여흥행사를 함께 거행했다는 것으로 매굿에 병연되는 잡색놀이와 관련이 있다. 잡색의 기본적인 배역은 포수·각시·양반·중·하동 등이 있고, 일부 지방에서는 말·호랑이·곰·소·닭 등의 동물 가장춤도 있다. 이들 잡색 중 포수는 매굿에서 잡귀를 물리치는 축역무(逐疫舞)와 관련이 있으며, 각시·중·양반·

10) 김일출, '봉산탈놀이의 옛모습을 찾아서', 『문화유산』 3호, 과학원출판사, 1957, 61-62면 요약(전경옥, 『한국가면극 그 역사와 원리』, 열화당, 1998, 160면에서 재인용).

11) 『東國歲時記』 12月 高城俗 참조.

하동 등은 풍요주술적 놀이에서 기원한 오락적 가면희로 발전하는데 기여하였던 것으로 매굿은 민속연희의 산실로 기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위에서 각 지역 매굿의 지역적 특성을 살펴보았는데, 부산지역의 경우는 ⑤의 유형과 동궐라 할 수 있다. 현전하는 부산지역의 대표적인 매굿인 동래 지신밟기의 경우 매해 연초 당산제와 연계해 행해 오고 있으며, 소위 민간 나희라 할 수 있는 잡색놀이가 병연(竝演)되어 지역의 대표적 연희문화이자 가면희의 산실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

동래지신밟기는 정초 제액초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세시 벽사의례로 달리 걸립, 매귀, 매구라 칭하고 있는데, 걸립은 지신밟기를 베푸는 목적에서 비롯된 명칭이며, 매귀와 매구는 지신밟기의 제의적 성격에서 비롯된 명칭으로 지신밟기가 매악 즉, 매굿의 계승태임을 말해준다.

동래 지신밟기는 풍물굿으로 먼저 주산신과 당산신에 대한 제의를 베풀어 마을의 수호신의 영을 받든 뒤 풍물패들이 마을의 각 가정을 돌며 집안에 상주하는 가신들을 위무하는 한편, 집안 곳곳에 있을 지도 모를 잡귀잡신들을 물리치는 곳을 친 뒤, 잡색들이 판굿을 벌여 매굿의 제의적 의미를 놀이로 구현하면서 함께 여흥을 즐기는 구조로 짜여 있다. 동래 지신밟기의 제차는 주산 지신풀이→당산 지신풀이 → 우물 지신풀이 → 가정집 지신밟기(마당놀이→대청풀이→큰방 성주풀이→각방 치장풀이→조왕 지신풀이→샘 지신풀이→장독 지신풀이→도장지신풀이→마굿간 지신풀이→뒷간 지신풀이→삼작 지신풀이→주산풀이)순이다. 현전하는 지신밟기의 제차나 악기의 편성이나 대오 및 제의 절차나 제의방식, 관련 의식요가 대동소이함으로 여기서는 지역적 특성이 두드러지는 잡색들의 판굿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동래지신밧기에서 병연되는 판굿을 살펴보면 부산지역의 경우 판굿의 주요 모티브는 ‘가재도구 훔치기와 되팔기’이다.

①설쇠잡이가 대청 지신풀이를 부를 동안 포수는 부엌으로 들어가 주걱을 훔쳐 나와 주인 생원에게 그 주걱을 판다. 액(厄)이 묻어나온 주걱이라 병어리 시늉을 해야 복이 도망가지 않는다고 해서 주인 생원에게 주걱을 팔고자 할 때, 거간꾼으로 하동이 나타나 포수 대신 값을 부르고, 포수는 하동이 부른 값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값에 팔지 않겠다는 시늉을 한다. 그렇게 하여 값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 포수는 주걱을 주고 주인 생원으로부터 돈을 받게 되는데, 받을 찰나에 사대부가 나타나 그 돈을 빼앗아 도망간다. 그러면 포수가 사대부를 쫓아가 병어리 시늉으로 투전도박을 벌이자고 한다. 투전도박을 하여 포수가 그 돈을 빼앗을 순간 하동이 나타나 그 돈을 가로채면, 포수는 각시를 데리고 와서 하동에게 각시를 넘겨주고 그 돈을 도로 찾아 주머니에 넣는다. 그리고는 하동과 각시가 어울려 춤추는 것에 질투를 느낀 포수는 다시 춘녀를 데리고 와서 각시와 춘녀가 춤을 추게 하고, 하동을 따돌린다. 이러한 춘극을 벌이는 동안 그 외의 잡석들은 제각기 허튼춤을 춘다.¹²⁾

②대방(大方)에서 풀이하는 동안 포수는 여기 저기 쏘다니다가 부엌에 가서 조리, 주걱, 냄비 등 부엌살림 몇 가지를 훔쳐 나와 하동에게 자랑한다. 하동이 그것을 빼앗으려고 하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자 사대부에게 넘겨서 주인에게 팔자고 제의한다. 포수가 이에 동의하여 사대부에게 조리와 주걱 등을 넘겨주면 사대부는 주인에게 가서 흥정을 하다가 그것을 팔아 버리고 돈은 슬그머니 가로챈다. 포수는 어이없다는 듯 바라보다가 하동에게 화풀이를 한다. 돌은 쫓고 쫓기다가 하동이 포수의 총구 앞에서 죽을 판에 이르자 “포수야 범 봐라”고 외친다. 겁쟁이 포수는 “어디어디”하면서 사지를 떨다가 기절하여 넘어진다. 하동은 넘어진 포수의 엉덩이에 손을 얹어 더듬다가 뽕새를 말으면서 구린내가 난다는 듯 얼굴을 찡그리며 ”귀-“하고는

12) 『동래들놀이』, 동래야류보존회, 1989, 268-269면.

큰 기침을 한다. 기침 소리에 놀란 포수가 정신을 차려 일어나서 하
동을 잡으러 간다. 둘은 다시 쫓고 쫓기면서 장난을 친다.”¹³⁾

동래지역 판국의 주요 모티브는 ‘가재도구 훔치기와 되팔기’이다.
이는 호남지역의 판국이 주로 ‘도둑잡이’ 모티브를 중심으로 연행되
는 것과 대비될 수 있다. 즉, ‘가재도구 훔치기와 되팔기’모티브는 부
산 경남지역에만 나타나는 지역적 특성이라 할 수 있는데, 매국에
병연되었던 이러한 판국은 조선시대 부산지역에서 형성된 민속 연희
문화의 일면을 조명할 수 있는 것으로 특히 주목된다.

판국은 선행되는 매국의 제의적 의미를 놀이로 구현하는데서 출발
한다. 위 판국에서 포수가 총을 쏘는 행위는 재앙을 물리치는 벽사
의 의미이며, 포수가 가재도구를 주인에게 되파는 것은 소유의 질서
를 무화시켜 묵은 공간의 질서를 해체 파편화시키는 난장적 의미와
함께 재액을 소멸하고 새로운 질서를 창출하고자 하는 축제적 의미
를 함의하고 있다. 이러한 제의적 모티브가 시대적 추이에 따라 가
재도구 훔치기와 되팔기의 제의적 의미는 축소되고 주변적이고 세속
적인 인물인 하동(말뚝이와 극적 인물 성격이 유사함)을 부각시켜
새로운 질서를 양도하는 포수를 역으로 조롱하고 희화하는데 보다
역점을 두고 있다.¹⁴⁾ 그래서 동일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①, ②와 같
이 다양하게 놀이가 전개되고 있는데, 이는 동래지방의 판국은 판국
의 제의적 모티브의 골간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동일한 요소를 반
복하거나 새로운 인물들을 개입시키면서 보다 세속적인 극 놀이로

13) 민족미학연구소 박진주 선생 자료집 발간위원회, 『박진주선생자료집1』, 1999, 53면.

14) 하단리(동래군 사하면 하단리)의 지신밟기를 보고한 손진태의 <수문록>(『조선 민속·』 제3집, 1945)에 의하면 잡색군은 양반2인, 도포수뿐으로 하동과 각시는 등장하지 않는다. (부산시사편찬위원회, 『부산시사』 제4권, 1991, 1187-1188면 참조).

확장시켜나고 있는 경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주목할 것은 갈등관계에 있었던 인물들의 대결이 중국에는 무화되거나 화합하는 것으로 귀결되고 있다는 점이다. 판굿에 나타나는 극적요소를 반복적으로 변형시켜 놀이를 확대시켜 나가는 놀이적 역량과 인물의 제의적 역할보다 인물의 현실적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일상적 소재로 끌어내리는 세속화 과정, 그리고 화해와 통합의 논리로 극을 종결짓는 미학적 구성 원리는 이 지역 연희 담당층들의 연희적 지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는 바, 위 판굿은 동래야류의 연희적 특성과 관련해 볼 때 현전하는 동래야류의 형성과정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2) 거릿대제

고대 사령(死靈)관념에 의하면 시체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귀류가 있으며, 특히 원한을 풀지 못하고 돌림병으로 죽은 이는 여귀(厲鬼)가 되는데, 이들 여귀는 사람들에게 질병과 재해를 끼치는 악귀이기 때문에 그들을 잘 모시어 응결된 한을 풀어주고 위무하지 않으면 재앙을 초래한다고 믿었다. 현전하는 거릿대제는 이러한 고대의 사령관념에 근간을 둔 벽사의례로, 사령 중 특히 원귀나 여귀를 위무하여 재해와 질병을 막아 마을의 안녕을 도모하고자 하는 의례를 지칭한다.

공동체 구성원들의 안녕을 위하여 재해와 질병의 근원이 무주고혼의 원혼이라 여겨 이를 위무하여 재액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거릿대제의 전통은 신라시대 압구제(壓丘祭)¹⁵⁾로 소급된다. 압구제는 제의의 공간인 구(丘)의 성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제의적 성격이 달라 질 수 있는데, 구릉을 경계의 관점에서 보면 압구제는 오늘

15) 『三國史記』 卷第 32 雜志, 第1 祭祀條.

날 마을의 경계가 되는 구릉에 돌무더기를 만들고 그 돌을 통과할 때에 돌을 엮어 놓음으로 해서 액운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서낭제의 원류로 이 역시 경계지에 베푼 벽사의례라 할 수 있다. 반면, ‘구(丘)’는 구릉의 뜻 외에 무덤의 뜻이 있다. 구릉과 무덤을 연계시킨 관점에서 본다면, 압구제는 여귀 곧 여역을 퇴치하고자 한 벽사의례라 할 수 있다.

압구제는 이후 고려시대까지 지속되다 조선시대에 유교식 불양의례(祓禳儀禮)인 여제로 대체되었다. 정종 대에 각 주현에 여제단이 설치¹⁶⁾되기 시작하였으며, 태종대에 이르러 예조에서 여제의 제법을 제정함으로써 여제는 명실 공히 국가적 제전으로 자리하게 되었다.¹⁷⁾ 여제는 봄-청명(淸明), 가을-7월 보름, 겨울-10월 1일에 정례적으로 치제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 외에도 전염병이 만연하거나¹⁸⁾ 전쟁으로 인한 피해가 있을 때¹⁹⁾ 나라에 큰 일이 있을 때면 별여제(別厲祭)²⁰⁾를 달리 베풀기도 하였다. 여제는 경중과 외방의 각 행정단위로 나누어 단을 설치하고 경중이나 개성은 중앙에서 파견한 당상관이, 각 외방에서는 그 수령이 치제하였는데, 부산지역의 경우 여제를 베푸는 여단은 현의 북쪽에 설치되었으²¹⁾며 동래부사가 치제하였다.

16) 定宗二年設厲祭壇 命州縣亦設壇 (『增補 文獻備考』 卷63, 禮考10, 厲祭條).

17) 『朝鮮王朝實錄』太宗 卷七 四年 甲申 六月條.

18) 『朝鮮王朝實錄』文宗 卷七 元年 辛未九月條, 『朝鮮王朝實錄』中宗 卷三十六 十四年己卯六月條, 『朝鮮王朝實錄』光海君 卷七十 五年癸丑正月條, 『朝鮮王朝實錄』仁祖 卷四十五 二十二年甲申二月條, 『朝鮮王朝實錄』顯宗改修實錄 卷十一 五年甲辰六月條.

19) 『朝鮮王朝實錄』中宗 卷三十六 十四年己卯七月條, 『朝鮮王朝實錄』宣祖 卷五十 二十七年甲午四月條, 卷五十九 二十八年乙未正月條.

20) 『朝鮮王朝實錄』顯宗改修實錄 卷二十四 十二年辛亥四月條, 『朝鮮王朝實錄』純祖 卷十五 十二年壬申四月條.

21) 『新增東國輿地勝覽』卷之二十三, 東萊縣.

관에서 주재하는 여제와 달리 민간에서 행하는 거릿대제는 마을 공동제의로 주로 마을 수호신에 대한 당산제를 베푼 뒤 행한다.²²⁾ 부산지역에 전승되고 있는 당산제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현전하는 거릿대제²³⁾는, 대체적으로 잡귀잡신을 막아주는 거릿대신을 독자적으로 상정하여 제를 베푼는 경우와, 거릿대신을 달리 상정하지 않고 무주고혼과 잡귀들을 대상으로 제를 베푼는 두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의 유형은 무주고혼과 잡귀를 퇴치해 줄 수 있는 상위의 신을 마을 수호신(하당신으로 상정되며 신체로는 당산나무, 장승, 돌탑, 거릿대 등이다.)으로 섬기어 제의를 베풀며, 후자의 유형은 상위의 신을 달리 상정하지 않고, 특정 신역(神域)에서 약간의 제물과 이렇수로 무주고혼과 잡귀를 직접 풀어먹일 뿐이다.

한편, 청사포의 경우는 특출하여 마을 안에 결신 잡신을 모시기 위한 신역을 따로 두고, 결신 잡신의 우두머리인 송장군(宋將軍)을

-
- 22) 해운대구 우1동 윤촌마을에서는 이와 달리 거릿대장군제를 당산제에 선행해 베풀고 있다.
- 23) 2005년도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에서 발간한 『부산의 당제』에 의하면 지금까지 거릿대제를 베풀고 있는 곳은 사직1동 석사 주당, 용당동 당산, 금곡동 울리 당산, 덕천3동 남산정당산, 화명동 수정 고당, 반송동 새마을당산, 반송2동 운봉 골매기할매당산, 반송2동 본동당산, 반여1동 무정리 당산, 석대동 상리 당산, 석대동 하리 당산, 우1동 장지 주산당, 우1동 윤촌 당산, 제송2동 제송 당산, 중1동 미포당산, 중2동 청사포 당산, 중2동 세터 할매집, 좌동 천제당과 상산마고당, 좌동 제석당, 금사동 금천 할매당, 금성동 공해 고당, 구서2동 두실 당산, 남산본동, 남산동 남중 머드레 당산, 노포동 녹동당산, 두구동 조리 당산, 두구동 수내리 고당할매, 서4동 당산, 선동 하정 당산, 장전2동 소정 산신각, 청룡동 본동 당산, 회동동 도래 당산, 구랑동 봉화 당산, 송정동 송정 당산, 송정동 방근 당산, 민락동 산신할매당과 골매기할매당, 수영동 조씨 할매당, 수영동 무민사, 감전2동 동감전 고석할매할매당, 만화리 동리 당산, 만화리 서리 당산, 시랑리 동암 골매기당산, 죽성리 두호 국수당 할매당산 거릿대당, 용천리 산수곡 할매당산, 원리 하리 할매당산, 황계리 골매기할매당산, 달산리 달산 할매당산, 용수리 평전 골매기당산, 월평이 두 할매당산, 와여리 서리 할매 당산, 장전리 할매당산 등이다.

수호신으로 좌정시켜 제의를 베풀고 있는데, 이는 거릿대제의 대상 신격이 앞에서 언급한 두 유형과는 다른 것으로 관부에서 시행한 여제의 신격 형성과정과 유사하다 할 수 있다. 신격과 신당의 형성과정에 의거해 본다면, 청사포의 거릿대제의 경우 관부에서 시행한 여제에서 일부 영향을 받았던 것은 아닌가 한다. 그러나, 현행되는 거릿대제가 민속의례로서의 전통성을 띄고 있음과 제법이 비손이 위주인 고유의 제법에 의거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현전하는 거릿대제는 여제의 민속적 변형이라기보다는 신라시대로부터 국가적 의례로 행해져온 압구제의 민속적 변형이라 할 수 있다.

2. 가정의례

자연공동체의 염원을 추구하는 공동체의례와 달리 가정의례는 가족공동체의 염원을 추구한다. 대체적으로 공동체의례는 의례주체가 남성위주임에 반해, 가정의례는 의례주체가 여성위주이다. 가정단위에서 행한 세시벽사의례의 전모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세시의 시간성을 중심축으로 순차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용이하겠으나, 여기서는 조선시대 세시벽사의례의 형성 및 변용과정과 의례적 특징을 살펴보는 데 있어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방매귀’·‘문첩벽사의례’·‘직성풀이와 삼재풀이’ 등에 대해서는 장을 독립하여 살펴보고자 하며 그 외,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세시벽사의례들은 개괄하여 순차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방매귀(放枚鬼)

방매귀란 앞 장에서 살펴본 마을 공동체 단위에서 행한 구귀축역의식(驅鬼逐疫儀式)인 매굿과 상응하는 것으로 각 가정단위에서 주

부가 연초나 연말에 주기적으로 행하는 구귀축역의식을 일컫는다. 민간에서 가정의례로 행한 구귀축역의식을 일컫는 제의명은 달리 전승되지 않고 있다. 다만, 성현이 『용재총화』에서 당시 민간에서 행해져온 이러한 벽사의례를 방매귀란 지칭하였을 뿐이다. 본고에서 성현이 명명한 ‘방매귀’를 그대로 차용하고자 하는 연유는 매굿과 방매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매’가 고대 우리 고유의 벽사의례였던 매악에서 근원하고 있음을 환기시키기 위해서이다.

방매귀가 민간의 세시의례로 정착된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관련 문헌 자료가 고려후기부터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방매귀는 매굿과 더불어 고려시대에 비로소 세시의례로 정착된 듯하다. 매굿과 방매귀가 고려시대에 비로소 세말의 세시의례로 정착된 데에는 고려 관부가 중국의 나례를 유입, 계동대나례를 범국가적 의례로 제도화하여 시행토록한 정치적 정황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고려시대 각 가정에서 주로 행한 방매귀의 대표적인 의례는 ‘폭죽 터뜨리기’이다. 문헌자료에 의하면 이 시대 각 가정에서는 송구영신을 위한 일환으로 제야에 문 앞에서 ‘폭죽’을 터뜨렸다 한다.²⁴⁾ 폭죽 터뜨리기는 대나무에서 나는 굉음과 화기로 부정적 정령과 귀류를 직접 위협하여 물리치고자 하는 일종의 위하법(威嚇法)에 의거한 주술적 벽사의례이다. 제야에 각 가정의 문 앞에서 폭죽을 터뜨리는 것은 새해를 경사롭게 맞이하기 위해 집의 경계지에서 부정적 정령들과 귀류들의 침입을 막거나 물리치기 위한 일환으로 행해졌다 할 수 있다.

조선시대에 들어서면 방매귀는 ‘폭죽 터뜨리기’에만 국한되지 않

24) ○門上插桃何詭誕 庭中爆竹奈支離 (李奎報, ‘守歲’ 『東國李相國集』 全集 卷 13, 古律詩). ○常州城中目韻暮 常州城外人行 家家明燈笑語喧 處處爆竹神鬼驚 (鄭夢周, ‘常州除夜呈諸書狀官’ 『圃隱先生文集』 卷一).

고 주부가 주물(呪物)를 활용하여 집안 곳곳에 머물러 있을지 모르는 부정적 귀류들을 직접 위협하여 퇴치하고자 하는 다양한 주술의례들이 함께 병행되어 나타난다. 다음은 조선시대 각 가정에서 행한 방매귀 관련 자료이다.

①해마다 폭죽 소리를 듣지만

차례로 하늘을 뚫을 것만 같네²⁵⁾

②민간에서도 또한 이(나례)를 모방하여 행하는데, 진자는 없으나 푸른 댓잎과 붉은 가시가지와 익모초 줄기와 복숭아나무의 동쪽 가지를 한데 합하여 빗자루를 만들어 창살을 막 두드리고 복과 팽과리를 울리며 역귀를 문 밖으로 몰아내니 이를 방매귀라 한다.²⁶⁾

③뇌고 소리 들리고 담소 소리 떠들썩하니 동쪽 집 서쪽 집에서 정히 구나를 하네. 유인은 갑자기 강호의 꿈을 중지하고 일어나서 풍로에 올린 설수차를 마시네. 어리석은 종은 억지로 이웃을 본받으려고 비를 들고 야유하며 웃고 또 성을 내네. 곤궁하고 가난한 귀신은 끝내 보내지 못하고 함께 잠자는 남녀들만 몰라 깨게 하네.²⁷⁾

②에 의하면 조선시대에는 ①의 폭죽과 더불어 징과 북 등을 활용한 굉음으로 부정적 정령들과 귀류들을 위협하는 위하법에 의거한 주술의례가 더욱 다양해 졌음을 알 수 있다. 더불어, 정령과 귀류가

-
- 25) 連年逢竹爆 (盧守愼, '除夕獨酌 有懷愴然 兩親居京 祖營在尙', 『蘇齋先生文集』 卷3, 詩). 이 외 폭죽관련 문헌자료들은 다음과 같다. ○中宵譙鼓報闌闌 斷送人間已亥年 爆竹頌椒無舊俗 (許筠, '除夕', 『惺所早舘藁』 卷1 詩部1). ○爆竹籩錚競餘年 喧喧人語九街連 (吳竣, '除夕次 白沙相公韻', 『竹南堂稿』 卷 4, 七言律詩 下).
- 26) 民間亦倣此事 雖無偃子 以綠竹葉 紫荊枝 益母莖 桃東枝 合而作箒 亂擊櫺戶 鳴鼓鉦而驅出門外 曰放枚鬼. (成倪, 『慵齋叢話』 卷之2).
- 27) 雷鼓嘈嘈笑語多 東家西舍正驅籩 幽人忽罷江湖夢 起啜風爐雪水茶 癡奴強欲效比隣 荅帚揶揄笑且嘖 窮鬼貧神終不去 只消驚動夢慙 (金宗直, '除夜卽事', 『佔畢齋集』 卷十七).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푸른 댓잎·붉은 가시나무·익모초 줄기·복숭아나무의 동쪽가지 등의 주물(呪物)로 위협하는 의타법(依他法)에 의거한 주술의례도 함께 병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③에서 어리석은 종이 이웃에서 행하는 방매귀를 흉내 내어 “갈대비를 들고 야유하며 웃고 또 성을 내네”라 하였는데, 이를 통해 방매귀에서도 역귀들을 협박하고 퇴치하기 위한 주술의례를 베풀 때, 나례에서 나타나는 진자의 주사(呪辭)나 주가(呪歌)와 유사한 주문(呪文)이 수반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세말의 대표적 벽사의례인 방매귀는 근래에까지 강한 전승력을 지니고 전승되고 있다. 특히 방매귀는 부산지역에서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전승되고 있다 할 수 있겠는데, 현전하는 세말 방매귀의 의례양상은 다음과 같다.

- 그믐날 밤에 귀신을 쫓기 위하여 집안의 주부가 대문 옆에 대나무를 꽃아 놓고 불을 지르거나 고춧가루·소금·팥·콩·쌀을 섞어 볶아 집안과 삼짝(사립문)에 뿌리거나, 메밀과 고추를 섞어 볶아 집안과 삼짝에 뿌린다.²⁸⁾
- 그믐날 저녁에 부녀자들이 이듬해의 액막이를 하기 위해 낫쇠 그릇을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두드리거나, 이 빠진 사기그릇을 대문 밖에 가지고 나가 부순다.²⁹⁾
- 선달 그믐날 밤에 주부가 ‘귀신 쫓는다’· ‘잡귀 쫓기’라 하며, 고추·팥·소금·콩·쌀을 볶아 집안과 삼짝에 뿌린다.³⁰⁾
- 그믐 저녁에 부인들이 이듬해의 액막이를 하기 위해 낫쇠 그릇

28) 김승찬, 위의 책, 198-199면.

29) 김승찬, 위의 책, 199면.

30) 황경숙, 『부산의 민속문화』, 세종출판사, 2002, 336면.

을 밖에 가지고 나가서 두드린다.³¹⁾

쪽죽과 더불어 행해지고 있는 ‘놋쇠 그릇 두드리기’·‘사기그릇 부수기’ 등은 전대의 ‘징과 북 두드리기’와 동궐로 위하법에 의거한 주술의례이며, ‘고춧가루·소금·팔·콩·쌀을 섞어 볶아 뿌리기’는 전대에서 ‘푸른 댓잎·붉은 가시나무·익모초 줄기·복숭아나무의 동쪽가지로 만든 빗자루로 쓸기’와 동궐로 의타법에 의거한 주술의례이다. 조선시대 방매귀는 의례적 주물의 변화는 있으나, 의례행위의 본원적 원리와 의미는 손상되지 않고 그대로 전승되고 있다 할 수 있다.

한편, 부산지역의 경우 현전하는 방매귀는 제야의 세시의례로 한정되지 않고 정월에도 빈번히 행해지고 있다. 이로써 부산지역의 경우 방매귀는 신년의례가 이루어지는 선달과 정월의 세시의례로 다양하게 전개되어 왔음을 알 수 있는데, 정월 방매귀는 근래에 새로이 형성된 신생민속이라기 보다는 조선시대 방매귀의 유습으로 보는 것이 온당하리라 생각된다. 정월에 행한 방매귀의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³²⁾

- 정초에 주부가 오곡을 볶아 지붕 위나 산에 뿌려 액막이를 행한다.
- 정월 초닷새를 귀신 단지달이라 하여, 단지떡을 해 먹고 팔죽을 끓여 사방에 뿌리고 머리카락을 태워 귀신을 쫓거나 절에 가 불공을 드려 축귀한다.
- 정월 열엿새날 저녁에 집안에 붙은 귀신을 쫓기 위해 팔을 삶아 소금, 술을 섞어 마당에 뿌리며 ‘귀신아 많이 먹고 물러가라’원다.

31) 『부산 산성마을의 기층문화』, 부산대학교 부설 한국문화연구소, 1994, 52면.

32) 김승찬, 『부산의 세시풍속』, 세종출판사, 1999, 40- 94면의 여기저기에서 발췌하였음.

- 보름날 아침에 그 해의 액을 막기 위해 대문에 금줄을 치고 황토를 세 곳에 놓고 비손한다. 집안 대주의 그 해 신수가 좋지 않다고 하면 보름날 서낭당의 흙을 파와서 대문 앞과 부뚜막에 뿌린다.
- 보름날 새벽에 그 해 부정을 물리치기 위해 주부가 바가지에 물을 담아 솔잎이나 땃잎을 띄워 놓고 ‘부정친다’ 또는 ‘부정 가신다’하고 외면서 집안 구석구석에 물을 뿌리고 마지막에는 대문 밖으로 물을 뿌리거나, 주부가 집 안 곳곳과 대문 양 쪽 옆에 소금을 뿌린다.
- 보름날 주부가 귀신을 쫓는다고 메밀과 고추를 볶아서 집안 곳곳에 뿌린다.
- 정월에 주부가 잡귀를 쫓기 위하여 콩이나 팥을 볶아서 집안의 사방에 뿌린다.

‘콩·팥·오곡·메밀·고추 등을 볶아 집안 곳곳에 뿌리는 것’과 ‘솔잎과 땃잎을 띄운 정화수를 집안 곳곳에 뿌리는 것’, 그리고 ‘머리카락을 태워 귀신을 쫓고자 한 것’ 등과 같은 방매귀 의례는 모두 의타법에 의거한 주술의례로 조선시대 방매귀 행사에서 일반적으로 널리 행해져온 의례 방식들이다.

정월에 행한 방매귀의 의례적 특성을 굳이 찾자면, 정월의 방매귀는 세말의 방매귀와 달리 정령과 귀류를 제물로 극진히 위무하고자 하는 ‘공대법(恭待法)’과 더불어 정령과 귀류들이 애초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부정을 치고 금줄, 소금, 황토, 서낭당 흙으로 성역화 하고자 하는 ‘차단법(遮斷法)’이 많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러한 차이점은 각 방매귀의 세시적 시간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를 종합하여 본다면 선달과 정월의 방매귀는 ‘쫓음 → 정화 → 보호’의 점진적 단계로 유기성을 가지고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문첩벽사의례

문첩벽사의례란 문신(門神)의 형상이나 주사 및 주물을 대문이나 방문 등에 붙이거나 달아 재해와 질병의 근원이 되는 부정적 정령(精靈)과 귀류(鬼類) 및 사기(邪氣)의 침범을 미연에 막고자 하는 액막이 의례를 통칭한다.

문첩벽사의례의 연원은 삼국시대로 소급되나, 세시의례로 정착된 시기는 고려시대부터라 할 수 있다. 『삼국유사』의 도화녀비형랑조와 처용랑망해사조 및 『대동운부군옥』의 십화요탑조에 의하면 신라시대 이미 비형랑³³⁾, 처용³⁴⁾, 지귀³⁵⁾과 관련한 문첩벽사의례가 민간에서 두루 행해져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시대 행해진 문첩벽사의례가 세시의례로 정례화되어 행해졌는지, 혹은 특정한 상황 및 의례와 관련해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이들 벽사의례와 관련한 대상신과 의례행위의 유래담이 형성된 시기를 고려하고, 신라시대 국가적 벽사의례가 비정기적인 의례인 별제로 행해졌던 전통³⁶⁾을 감안한다면 이 시기 문첩벽사의례가 세시 의례로 정착되었다고 보기는 힘들 것으로 추단된다.

문첩벽사의례가 세시의례로 정착된 시기는 고려시대부터라 할 수 있을 것인데, 고려시대 문첩벽사의례는 신라시대의 문첩벽사의례의 전통을 일면 계승하되, 중국 나례의 유입과 더불어 나례의 구나 의식에서 축역신으로 등장하는 중국문신을 수용하는 한편, 전통적인 주

33) 聖帝魂生子鼻荊郎室享 飛馳諸鬼衆 此處莫留停 (『三國遺事』卷一 紀異).

34) 因此國人 門帖處容之形 以辟邪進慶 (『三國遺事』卷二 紀異).

35) 志鬼心中火 燒身變火神 流移滄海外 不見不相親 (『大東韻府群玉』卷 二十).

36) 四城門祭 一大井門 二吐山良門 三習比門 四王后梯門…… 四大道祭 東古里 南簷并樹 西渚樹 北活併岐 壓丘祭 辟氣祭 上件或因別制 或因水旱 而行之者也 (『三國史記』卷第32 雜志 第1 祭祀條).

물을 차용함으로서 전대에 비해 의례 방식이 보다 다양하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관련 문헌자료를 바탕으로 고려시대 문첩벽사의례의 제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원일(元日)	단오(端午)	제일(除日)
문신(門神)	처용 ³⁷⁾ · 울루 ³⁸⁾		
주물(呪物)		에인(艾人) ³⁹⁾	복숭아나무 · 산초나무 · 전나무 · 가시나무 ⁴⁰⁾

고려시대의 문첩벽사의례는 원일, 단오, 제일의 정례적인 세시의례로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 원일과 제일은 신년의례를 행하는 기점으로 의례적 의미는 동케라 할 수 있는데, 흥미로운 것은 제일에는 주물을 활용한 반면, 원일에는 문신을 좌정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제일의 의례적 특징은 차단법(遮斷法)에 의거하고 있음에 비해, 새해가 시작되는 원일에는 수호신을 좌정시키는 공대법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를 통해 제일과 원일에 행한 문첩벽사의례의 의례적 연속성, 즉 금제(禁制) -제일-에서 신성(神聖) -원일-으로 나아가는 점층적 특성을 엿볼 수 있다.

조선시대의 문첩벽사의례문화는 고려시대의 문첩벽사의례를 보다

- 37) ○依係羅代兩仙翁 會見畫圖中 (李穀, ‘次鄭仲孚蔚州八詠開雲浦’, 『稼亨先生文集』 卷之二). ○至今門闌上 仿佛着遺容(金宗直, ‘開雲浦二詠 處容巖’, 『佔畢齊集』 卷4).
- 38) 盃激屠蘇酒 門書鬱壘神 (鄭摠, ‘戊辰年元日’ 『復齋集』 卷上).
- 39) ○艾葉扶翁上瓊戶 (李穡, 『牧隱先生文集』 卷 3, 端午). ○萬戶千門掛艾人(元天錫, 『耘谷行錄』 卷2 端午).
- 40) ○門上插桃何詭誕 庭中爆竹奈支離 (李奎報, ‘守歲’ 『東國李相國集』 全集 卷 13, 古律詩). ○村舍經除夕 如今見 二灰 桃椒爭除夕檜梗 (李詹, ‘癸丑年歲 除夜’, 『雙梅堂先生文集』 卷一).

발전적으로 계승하여 세시의례로서의 영역을 확장하고 있으며, 의례 대상물인 주물과 문신(또는 벽사신)은 물론 의례양상 또한 전대와 대비해 보다 다채롭게 전개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먼저 관련 문헌자료들을 취합하여 세시별 문첩벽사의례의 전개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원일(元日)	입춘(立春)	단오(端午)	동지(冬至)	제일(除日)
주물	복숭아나무가지 ⁴¹⁾	복숭아나무가지 ⁴²⁾	쑥(애화·애인 애쑥 ·채송·창포 ⁴³⁾)		
문신 및 나신	처용 각귀·종규· 진숙보·울지공· 위정·저수랑· 금갑신장·신선· 사천왕신상· 위정공 ⁴⁴⁾	울루·신도 ⁴⁵⁾		울지공·진숙보· 신도·울루 ⁴⁶⁾	호령·종규·울루· 수성·선녀·적일 신장·귀신의 머라· 울지·진숙보· 위정공 ⁴⁷⁾
주사 및 부적		나례시 진자의 주사·치우 구역 주사 ⁴⁸⁾	나례시 진자의 주사·치우 구역 주사·부적 ⁴⁹⁾		
민간 신앙적 대상	담·호랑이 ⁵⁰⁾	세마리의 매 ⁵¹⁾			

41) ○更鍾鼓進桃符 風俗殊方事事殊 (金世濂, ‘癸酉元日’, 『東溟先生集』, 卷 3, 詩).

○繡闌桃符換 (金宗直, ‘癸卯元日迎祥詩 上命韻’ 『佔畢齋集』 卷17).

42) 栢酒迎新歲 桃符送一冬 (李景奭, ‘春帖禁中作’, 『白軒先生集』, 卷3).

43) ○窓戶插艾花 結綵勝 (趙秀三, ‘歲時記’ 端午, 『秋齋集』). ○艾看懸戶重 蒲認泛觴新 (李安訥, ‘端午’, 『東岳先生集』 卷 21, 湖營錄). ○戶仍懸艾舊 人自帶蒲新 (李安訥, ‘五月五日’ 『東岳先生集』 卷16 東遷錄 下). ○清晨結艾掛門戶 (李安訥, ‘端午’, 『東岳先生集』 권 11, 月城錄). ○酒泛蒲觴暖 門編艾虎懸 (蘇世讓, ‘端午’, 『陽谷先生集』, 卷6 詩). ○艾虎懸門影半飛 (丁壽崗, ‘戊寅端午帖子’, 『月軒集』 권3, 七言律詩). ○兒童縛艾人 (金宗直, ‘雨中呈府使’, 『佔畢齋集』 卷之三.). ○滿筵唯菖酒 當門有艾人 (徐居正, ‘端午’, 『四佳詩集』 卷5). ○朱符帶赤靈 門懸蒲艾滿 (金麟厚, ‘大殿端午帖’, 『河西先生全集』 卷9, 五言律詩).

44) ○門帖神影 外則甲士一對一鐵蟆頭 金鱗甲 植金簡 唐唐將秦叔寶 一銅兜鍪甲 植宣化斧 云尉遲恭 內則宰相一對皆烏蟆頭 大紅袍 各簪花 云魏徵褚遂良.(趙秀三, ‘歲時記’ 元朝, 『秋齋集』). ○圖書署畫壽星仙女直日神將圖獻于公 亦相贈遺名曰歲畫 以寓頌祝之意 又畫進金甲二將軍像 長丈餘 一持斧 一持節 揭于闕門兩扇 名曰門排 又以絳袍烏帽像 揭重閣門 又畫鍾馗捕鬼 帖戶 畫鬼頭 帖楣 以辟邪

고려시대 원일, 단오, 제일에 국한되어 행해오던 문첩벽사의례는 조선시대 들어 원일, 입춘, 단오, 동지, 제일로 확대 시행되었다. 역

瘟 諸宮家戚里門扇 亦揭之 閭巷又多效之 俗以金甲者 謂四天王神像 或以爲尉遲恭秦叔寶 絳袍者爲魏鄭公 (洪錫謨, 『東國歲時記』). ○清晨附畫物於門戶窓扉 如處容角鬼鐘道 幞頭官人介冑將軍 擎珍寶婦人畫鷄畫虎之類也.

- 45) ○鷄狗日過春又立 板扉幾貼神茶字 (金迥洙, 『農歌十二月俗詩』). ○立春 大內進延祥詩 家家揭春帖 寫鬱壘神茶於戶 或畫三鷹以祓灾害 (權用正, 立春 『漢陽歲時記』).
- 46) 舊俗 自內外 畫兩神將之像 頒于寂里各宮 或云此是尉遲恭陳叔甫之像 冬至日 帖于大門 各之曰 문비 威靈凜凜百邪驅 戚里新頒亞歲符 一雙金甲降魔斧 知是神茶鬱壘圖 (崔永年, 『海東竹枝』 門神符).
- 47) ○靈道初貼戶 茶壘已安扉 (崔濱, 『除夕 二首』, 『良齋先生文集』, 卷 8, 詩). ○闕內及諸宮家 卿相家閭巷 以大壯紙 畫金甲將軍 除夕貼大中門 卽古鬱壘符遺意也 (趙雲從, 『歲時記俗』 除夕, 『勉菴集』). ○圖書署書壽星仙女直日神將圖獻于公 亦相贈遺 名曰歲畫 以寓頌祝之意 又畫進金甲二將軍像 長丈餘 一持斧 一持節 揭于闕門兩扇 名曰門排 又以絳袍烏帽像 揭重閣門 又畫鍾馗捕鬼 帖戶 畫鬼頭帖帽 以辟邪瘟 諸宮家戚里門扇 亦揭之 閭巷又多效之 俗以金甲者 謂四天王神像 或以爲尉遲恭秦叔寶 絳袍者爲魏鄭公 (洪錫謨, 『東國歲時記』 正月條).
- 48) 立春 人家遍揭帖子 而大門帖 多有門神戶靈呵禁不祥八字 且列慶最尙春帖 遍受名筆 揭于外柱 (趙雲從, 『歲時記俗』 立春, 『勉菴集』). ○觀象監朱砂擲辟邪文 進其于文 大曰內 貼門楣 甲作食凶 沸胃食虎 雄伯食魅 騰簡食不祥 覽諸食咎 伯奇食夢 強梁祖明共食磔死寄生 委隨食糶 錯斷食臣 窮奇騰根共食蠱 惟十二神 急去莫留 如或留連 當嚇汝軀 粒汝肝節 解汝肝腸 其無悔 -中略- 偃子所和之斯 而今作立春符 端午日貼之 (洪錫謨, 『東國歲時記』 立春條).
- 49) ○端午日 人家門楣 揭朱字符帖 以辟惡鬼 其文曰 四百四病一時消滅 急急如律令 (趙雲從, 『歲時記俗』 端午, 『勉菴集』). ○舊俗 端午正午時 貼此符于梁上 能消一年百病 此是無學大師秘法 其符曰 五月五日 天中之節 上得天祿 下得地福 銅頭鐵額 蚩尤之神 四百四病 一時消滅 噫急急如律令 娑婆呵云 名之曰 단오부작 (崔永年, 『海東竹枝』). ○五月五日 天中之節 上得天祿 下得地福 蚩尤之神 銅頭鐵額 赤口赤舌 四百四病 一時消滅 急急如律令 (洪錫謨, 『東國歲時記』 端午條).
- 50) ○巷間壁上 帖鷄虎畫 以禳之 (洪錫謨, 『東國歲時記』 元日條). ○圖書署進歲畫 金甲神將帖宮殿門 仙人鷄虎帖 照壁 (金邁淳, 『洙陽歲時記』 元日條). ○正月 歲初 村閭貼鷄虎 畫以禳三災 且以正月爲上月 迎誓誦經以度厄. (趙雲從, 『歲時記俗』 正朝, 『勉菴集』). ○清晨附畫物於門戶窓扉 如處容角鬼鐘道 幞頭官人介冑將軍 擎珍寶婦人畫鷄畫虎之類也.
- 51) 立春 大內進延祥詩 家家揭春帖 寫鬱壘神茶於戶 或畫三鷹以祓灾害 (權用正, 『漢陽歲時記』 立春條).

귀를 퇴치하고자 하는 단오를 제외하고는 모두 신년의례적 의미를 함의하고 있어 넓은 의례의 목적은 동폐라 할 수 있다.

조선시대 문첩벽사의례의 특징으로 우선, 의례 대상물이 문신이나 주물에 한정되지 않고 주사 및 부적 등과 함께 의례의 대상이 민간 신앙적 대상으로 까지 확대되어 나타나고 있다는 점과, 다음으로 관련 신격과 주사에서 중국 나문화의 영향이 지대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주사를 활용한 문첩벽사의례의 전통은 신라시대로 소급되나, 고려 시대에 접어들면 신라시대 주사와 관련된 비형랑이나 지귀에 대한 민간신앙적 기반이 상실됨으로 해서 주사 문첩벽사의례는 자취를 감추었다. 그런데, 조선시대 다시 주사를 활용한 문첩벽사의례가 재등장하고 있다. 또한, 고려시대에는 나타나지 않던 닭과 호랑이와 같은 민간신앙적 대상이 문을 수호하는 신격으로 새롭게 부상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조선시대 벽사의례문화의 다양성을 엿볼 수 있게 하는 한편, 민속신앙의 잠재적 전승력을 가름해 볼 수 있는 항목이라 생각된다.

문제는 외래의 유사 신앙 유입과정에서 나타나는 전통적 민속신앙의 왜곡현상이다. 우리나라 벽사의례문화의 형성과정에서 중국의 벽사의례문화는 지대한 영향을 끼쳐왔다는 사실은 주지하는 바다. 특히, 문첩벽사의례의 경우 그 영향력이 지대하여 우리 고유의 문신이었던 처용에 대한 신앙은 나례의 축역신으로 등장하는 중국의 문신과 나신으로 대체되어 갔을 뿐만 아니라⁵²⁾ 비형랑과 지귀와 관련된 전통 주사는 종적을 감추고 나례에서 진자가 창하는 주사로 완전히 대체되어 갔다. 이는 나례시행의 역사적 변천과정과 유관한 것으로 조선시대의 경우 나례가 범국가적인 행사로 정립되어 정례적으로 시

52) 처용신앙의 약화과정에 대한 간단한 설명 기술할 것.

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가적 대사에 수시로 수반되어 거행되었던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민간으로 침강되어 갔던 것으로 생각된다.

관부에서 제도적으로 시행한 나례로 말미암은 영향은 당시 부산지역의 경우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특히, 지방관아가 있었던 동래지역의 경우 관아 중심의 관아나는 계동대나례 뿐만 아니라 어가나 새로이 부임하는 감사 및 왕의 교지를 맞이할 때에도 수시로 나례를 거행하였던 것이다.

조선시대 문첩벽사의례는 상당부분 중국의 나문화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며 전개되어 왔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조선중기 나례가 쇠퇴의 길로 접어들고 종래는 나례가 공식적으로 정파되면서 자연스럽게 중국의 나문화에서 파생되었던 문첩벽사의례들도 자취를 감추어 갔다. 조선후기 각종 세시기에 기술되어 있는 문첩벽사의례 항목들은 당시 민간에서 실제로 행해지고 있는 의례를 기술한 것이라기보다는 문헌자료에 기재되어 있는 관련 자료들을 수록한 것에 불과한 것이었다. 조선시대 문첩벽사의례의 전승실태는 현전하는 문첩벽사의례에서 찾아 볼 수 있는바, 중국 나문화와 관련한 의례는 전혀 찾아 볼 수 없으며, 단지 민간신앙적 대상물을 활용한 의례만이 찾아 볼 수 있을 뿐이다. 다음은 부산지역에 현전하고 있는 문첩벽사의례의 제 양상들이다.

- 집안의 잡신들을 물리치고 잡귀들이 범접하지 못하게 동짓날이나 입춘에 호랑이나 닭의 그림을 그려서 큰 방 문 위에 부쳐둔다.
- 정초에 집안에 잡귀들이 범접하지 못하게 엄나무 가지를 대청 위나 문 위에 걸어 놓는다.
- 액막이로 달집 태운 뒤 남은 나무 막대기를 주워와 대문 앞에 세워둔다.

○그 해 집안에 액운이 들면 입춘에 사자를 써서 대문이나 대청의 기둥에 거꾸로 붙인다.

○단오에 그 해 잡귀를 쫓고 액운을 막기 위해 주부가 절에 가서 부적을 가져와 방문 위에 붙인다.

현전하는 문첩벽사의례에서는 고대로부터 형성 전승되어 왔던 민간신앙적 대상인 호랑이·닭·뱀에 대한 신앙과 식물의 주력을 활용한 주물신앙만 명맥을 유지하고 있을 뿐, 조선시대 풍미했던 중국의 문신이나 나신은 물론 진자의 주사의 흔적은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이러한 변화는 나례의 정파와 무관하지 않으며, 더불어 시대적 추이에 따른 신관념의 약화도 변화의 요인으로 지적할 수 있다.

한편, 현전하는 문첩벽사의례의 경우 집안에 액운이 들었 다고 여겨질 때에 임의적으로 행하거나, 특정한 시기에 제한적으로 행하는데, 이러한 변화의 주요 요인으로서는 근대이후 전통적 시간관의 변화와 더불어 가옥의 구조적 변화를 들 수 있다.

3) 직성풀이와 삼재풀이

종래 민간에서는 운수란 인간의 힘을 초월한 천운(天運)과 기수(氣數)에 의해 결정된다고 여겼다. 하늘이 정한 운수로 자연히 돌아오는 운수가 천운이며, 저절로 돌아가는 길흉화복의 운수가 기수이다. 따라서 재액에는 사람의 연치(年齒)에 따라 갖게 되는 직성(直星)의 재액과 삼재(三災)의 재액이 있으며, 재앙을 내리는 악신(惡神)으로 말미암아 뜻밖에 직면하게 되는 재액과 천변지이(天變地異)로 말미암은 재액이 있다.⁵³⁾ 이러한 각종 재액들이 이미 몸에 실린 경우 이를 퇴치하는 액풀이를 달리 ‘제액(除厄)’ 혹은 ‘소액(消厄)’이라 하고, 반

53) 김승찬, 『부산의 세시풍속』, 세종출판사, 1999, 226면 참조.

면, 뜻밖에 직면하게 될지 모를 재액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액막이를 달리 ‘방액(防厄)’ 혹은 ‘도액(度厄)’이라 한다.

여기서는 민간에서 행해져 오고 있는 각종 액풀이와 액막이 행사 중 사람의 연치에 따라 주기적으로 갖게 되는 직성과 삼재의 재액을 미연에 막고자 하는 직성풀이와 삼재풀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직성풀이란 직성이 든 해⁵⁴⁾에 재액을 물리치기 위해 직성이 든 가족이 있는 가정에서 제한적으로 행하는 벽사의례로 주로 정초나 정월 보름에 행한다. 직성풀이 및 삼재풀이에 대한 문헌자료는 조선시대부터 나타나, 이들 의례의 연원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는 실정이다. 직성풀이와 삼재풀이는 각 가정에서 행한 개인적 벽사의례 중 상대적으로 강한 전승력을 가지고 근래까지 전승되고 있는 것으로 조선시대부터 민간의 세시벽사의례로 일반화되었다.⁵⁵⁾

직성풀이의 의례방식에 대해서는 권용성의 『한양세시기』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직성법을 보아 일직성을 만나면 정월 대보름날 붉은 종이를 동글게 올려서 싸릿가지에 꿰어 지붕 용마루에 꽂는다. 월직성을 만나면 달맞이를 하고 수직성을 만나면 용밥을 주고 목직성을 만나면 목욕을 한 다음 동쪽을 향해 절을 한다. 화직성을 만나면 옷뚫 동정을 태우고 토직성을 만나면 산에 올라가 조를 뿌리며 금직성을 만나면 태백성을 향해서 절을 한다. 나후직성을 만나면 남자는 처용을 만들고 여자는 종이

54) 직성(直星)은 나이에 따라 운수를 맡고 있는 아홉별을 지칭하는 것으로 처용직성·토직성(土直星)·수직성(水直星)·금직성(金直星)·일직성(日直星)·화직성(火直星)·계도직성(計都直星)·월직성(月直星)·목직성(木直星)등이다. 남자는 10세에 제웅직성, 11세에 토직성 등의 순서로 나아가 19세에 다시 제웅직성이 되는 반면, 여자는 10세에 목직성 11세에 제웅직성의 순으로 나아가 19세에 다시 목직성이 된다.

55) 又剪五綵 象日月星辰 挿屋 云禳直命各星 (趙秀三, 『歲時記』, 『秋齋集』), 俗信卜說 年直日月直星者 剪紙象日月 鉗以木挿屋 月出時 或燃炬 迎之 水直星者 以紙飯夜半投井中 禳之 俗最忌處容直星 (洪錫謨, 『東國歲時記』 上元條).

주머니를 만든 다음 동전을 넣어서 길에 버린다. 계도직성을 만나면 종이에 버선 모양을 그린 다음 일직성을 만난 경우와 같이 꺾는다.⁵⁶⁾

각 직성마다 방액의 방침이 달리 행해졌는데, 이 중 특히 남아의 나후직성풀이의 경우는 당시 아이들의 유희로 발전하여 일제 강점기 때까지 널리 행해졌다. 아이들의 유희로 발전한 나후직성풀이에 대해 세시기에서는 각기 ‘타나후(打羅侯)’⁵⁷⁾ ‘타제용(打祭俑)’ ‘타추희(打芻戲)’ ‘제용치기’라 기술하고 있다. 직성풀이 중 널리 행해진 제용치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무당이나 점쟁이가 처용직성이 들었다고 겁을 주면 반드시 짚을 묶어서 사람의 형상을 만드니 이를 처용이라고 한다. 마을 아이들에게 길을 따라 다니며 인형을 치게 함으로써 그 재앙을 물리치는데, 여러 아이들이 그럴 줄 미리 알고 대보름 전날 밤에 마을을 돌아다니며 문 밖에서 처용을 내놓으라고 소리를 친다. 처용을 내어 놓는 집에서는 짚으로 만든 인형의 뱃속에 동전 몇 닢을 넣어 두는데 아이들이 이를 파헤쳐 동전을 가져간다. 만약 동전이 없으면 아이들이 욕을 한다.⁵⁸⁾

○ 옛 풍속에 정월 대보름날이면 풀을 묶어서 인형을 만든다. 머릿속에는 돈을 넣고 해진 옷을 입혀 싸라기죽으로 제사한 다음 해당되는 나후직성을 만난 사람의 생년월일을 적는다. 아이들은 돌아다니면서 제용을 내놓으라고 하여 내놓으면 그것을 치니 이를 ‘제용치기’라 한다. ⁵⁹⁾

제용치기와 더불어 정월 대보름 액막이가 놀이로 발전된 사례로 조롱머리기를 들 수 있다.

56) 權用正, 『漢陽歲時記』 上元條.

57) 十四夜 城中惡少待棒逐隊 曰打羅侯 (趙秀三, 『歲時記』, 『秋齋集』).

58) 趙雲從, 『歲時記俗』 除夕 『勉菴集』.

59) 崔永年, [名節風俗] 上元, 『海東竹枝』.

조롱버리기에 대해서 『동국세시기』에서는 남녀 어린아이들이 그 해 액을 막기 위해 지난 겨울부터 청, 홍, 황색을 띤 조롱을 채색 끈으로 엮어 차고 다니다 정월 14일 밤에 길에 몰래 버리는 것이라 하였고⁶⁰⁾, 『열양세시기』에서는 조롱차기는 여자아이들만 행하는 것으로 호로를 버릴 때에는 호로 돈 한 푼씩 매단다는 것이 관례라 하였다.⁶¹⁾ 조롱버리기에 대한 의례 방식은 두 세시기에서 모두 대동소이하게 기술하고 있으나, 전자의 경우는 의례 대상자를 남녀아이 전반으로 기술하고 있는 반면, 후자의 경우는 의례 대상자를 여자아이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보인다. 조선시대 조롱버리기의 의례 대상자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으나, 조롱버리기가 직성풀이와 달리 재액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일반적인 방액의례라는 점을 고려하고, 1910 -1920년대 신문기사⁶²⁾에서 제웅치기와 조롱버리기가 함께 정월 대보름날 어린아이들의 유희로 전승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조선시대 조롱버리기의 의례 대상자는 남녀아이 모두를 포괄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시대 아이들의 유희로까지 발전한 ‘제웅 버리기’와 ‘조롱 버리기’의 의례적 특징에 대해 살펴보자. 먼저, ‘제웅 버리기’는 액이 실릴 혹은 실진 자를 대신하는 대목숨(대속물)을 버림으로써 재액을

60) 男女幼少者 自冬佩小木筋蘆青紅黃三枚 如荳狀 用綵絲爲綬 上元前夜半 潛捐于道 亦爲消厄 (洪錫謨, 『東國歲時記』, 上元條).

61) 兒童以十月初 男放紙鳶 女佩木雕小筋蘆三枚 至上元d夜 鳶飄于空 筋蘆捐于道 各繫一文錢 名曰 防厄 (金邁淳, 『洙陽歲時記』, 上元條).

62) ○음력 정초도 그럭저럭 다 지나가고 오날을 벌써 보름이루구나 속담에 일년재액을 주어 보낸다는 제웅하조롱은 십스일적박에 집집마다 단이며 『제웅이나 조롱 줍시오』 하는 도령님예를 너여주니 인년 너에 신슈 불길흔일은 업슬 것이요 ([매일신보] 1915, 2, 28.) ○ [제웅]을 지고 다니는 아해들도 곳곳이 보히게 되얏다 -중략- 십사일 밤에는 『제웅직성』이 든집마다 제웅치러 다니는 사람들의 『제웅이나 『조롱』 주십시오』 소리가 밤이 깊도록 들리는 것이다. ([동아일보] 1924, 2, 18.)

없애거나 미연에 막고자 하는 방책으로 유사주술의 의거한 의례행위라 할 수 있다. 반면, ‘조롱 버리기’는 ‘한 번 접촉한 것은 실제로 그 접촉이 떨어진 뒤에서 서로 계속적으로 작용한다.’고 여기는 감염주술관에 의거한 접촉주술의 하나로 한 동안 몸에 지녀히어 체취를 깃들게 한 다음 이를 자신과 동일한 존재로 여겨 버리거나 태움으로써 자신의 액운을 제거하고자 하는 의례행위이다.

대속법이나 감염주술의 경우 모두 대속물에 재액을 전이시키는 것이기에 대체적으로는 비의적으로 행해지고, 부정한 액운이 실려 있는 대속물은 금기의 대상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조선시대 행해진 ‘제웅버리기와 ’ 조웅버리기’는 비의적인 제의에 머물지 않고, 어린 아이들의 유희로 변용되어 간 것인데, 이들 제웅 버리기와 조롱 버리가 유희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의례 과정에서 대속물에 금전을 첨가하였던 관행이 일반화 되면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어려웠던 시절 제웅이나 조롱에 첨가된 금전을 앞 다투어 갖기 위해 의례를 대신해주는 놀이로 변화되었던 것이다.

직성풀이와 관련하여 현재 부산지방에서는 ‘해·달 버선 오려 꽃기’ ‘어부심’ ‘제웅버리기’ 등이 전승되고 있으며, 유아들에 행하는 방액으로는 ‘조롱 버리기’와 더불어 형뿔으로 만든 작은 고추 세 개·작은 버선 한 켤레·동전 한 닢을 주머니에 넣어 아이에게 채워주는 방책이 전승되고 있다.

직성풀이와 달리 삼재⁶³⁾풀이와 관련한 문헌자료는 극히 미비하

63) 삼재란 水災·火災·風災 또는 兵難·疾疫·飢饉을 지칭하는 것으로 巳·酉·丑이 든 해에 난 사람은 亥·子·丑이 되는 해에, 申·子·辰이 든 해에 출생한 사람은 寅·卯·辰이 되는 해에, 亥·卯·未의 해에 태어난 사람은 巳·午·未가 드는 해에, 寅·午·戌 해에 태어난 사람은 申·酉·戌 해에 각기 삼재가 든다. (洪錫謨 『東國歲時記』 元日條).

다. 『동국세시기』에 “삼재가 든 사람은 정초에 세 마리의 매를 그려 문설주에 붙인다.”⁶⁴⁾란 기록이 전부이다. 그런데, 실상 현재까지 널리 행해지고 있는 방액의 대표적인 사례는 삼재풀이이다. 삼재부(三災符)는 물론 다양한 방책들이 널리 전승되고 있는데, 이는 근래에 새로이 산생된 신생민속이라기 보다 전통 민속의 전승태라 할 수 있는 바, 조선시대 이와 같은 삼재풀이가 민간에서 행해졌을 것이라 할 수 있다. 현전하고 있는 사례를 통해 삼재풀이의 사례를 통해 제의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정에서 주부가 먼저 부정을 방지하고 가시기 위하여 제장(마당이나 부엌) 주위에 숯검정과 미나리를 씻어 놓는다. 그리고, 삼재가 든 사람의 속옷과 고기 메밥(메밥은 밥을 푸지 않은 솔 밥 그대로에 열십자를 긋고 그 가운데 주걱을 꽂은 뒤, 그 주위에 손가락을 몇 개 꽂음) 탕 나물 과일 등의 제물을 제장에 진설하면 무당이나 박수가 경을 읽으면서 굿을 하고 주부는 제장 앞에서 계속 절을 하며 비손한다.

○정월 보름 안에 하루를 택해 무당을 불러와 액풀이를 하는데, 이때 마른명태의 입에 돈·소금·고춧가루와 액이 든 사람의 손톱·발톱 각 열개와 머리의 네 군데에서 뽑은 머리카락 몇 올을 넣어 한지로 싸서 삼베 끈으로 열 두 매듭 나게 묶어 놓고 삼재풀이를 한 뒤에 서북쪽을 향해 대목숨을 던져 대목숨의 머리(마른명태의 대가리)가 바깥을 향하면 풀이가 되었다고 한다. 만일 대목숨의 머리가 바깥을 향하지 않을 때는 계속 던져 향하도록 한다.

○삼재 든 사람이 정월에 그 해의 액을 막기 위해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고 삼재 든 사람의 옷을 가져가서 태우는데, 이 때 그 옷 속에 삼재 든 사람의 나이만큼 동전을 넣어 둔다.

○삼재 든 사람은 자기가 입던 적삼에 마른명태 한 마리와 달걀 한 개

64) 男女年値三災者 畫三鷹貼于門楣 (洪錫謨, 『東國歲時記』 元日條).

(남자일 경우는 암 달걀, 여자일 경우는 숫 달걀, 둥근 달걀은 암 달걀, 길쭉한 달걀을 숫달걀이라고 함)을 싸서 네거리 길에다 버린다.

위 삼재풀이의 경우 일부에서는 부정가시기를 위해 부정거리를 배 풀기도 하나, 전체적으로는 직성풀이와 같이 삼재가 든 사람의 대목숨(마른명태·달걀)을 활용한 대속법과 ‘한 번 접촉한 것은 실제로 그 접촉이 떨어진 뒤에도 서로 계속적으로 작용한다.’는 감염주술에 의거하여 삼재든 사람의 체취가 배인 속옷이나 옷을 태움으로써 재액을 소멸하고자 하는 주술의례가 주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직성풀이와 삼재풀이를 위한 방액의 의례방식이 동계임을 알 수 있는데, 개인에 따르는 재해를 미연에 막고자 하는 이러한 방액의 방책들은 현재 자동차사고 등과 같은 도시민속으로 수렴 널리 전승되고 있다.

한편, 직성이나 삼재가 든 경우가 아니더라도, 그 해 운수를 보아 흉한 점괘가 나올 경우에도 위의 대속법에 의거한 액막이를 행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역시 흉한 운세를 가진 이의 옷이나 물건은 물론 명태 등 대목숨을 활용하기로 한다.⁶⁵⁾

4) 기타 세시액막이

앞에서 살펴본 세시벽사의례 외에 조선시대 일반적으로 널리 행하였던 세시벽사의례의 제 양상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65) 권용정의 『한양세시기』에 의하면 정월 대보름날 옷이나 물건을 길에 내다 버려 재액을 막고자 한다 하였는데, 현전하는 운수 풀이의 경우 역시 동일하여, ○그해 신수를 보아 좋지 않으면, 보름날 새벽에 마른명태에 자기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쓴 종이를 넣어 짚으로 묶어 세거리에 묻거나 버린다.○정초나 보름날 그 해 나쁜 운수를 막기 위해 금정구 두구동 조리에서는 나이 수만큼 술가락으로 생쌀을 떠서 사거리에 버린다. 등의 방책을 행하고 있다.

시기		세시벽사의례
1월	원일	원일소발
	상묘일	토사차기
	보름	액연날리기·답교
3월	상사일	계음
5월	오일(단오)	창포 단오장
6월	보름(유두)	불계·유두국차기
9월	구일(중양)	등고낙모·수유주머니와 국화주머니차기·수유꽃기
11월	동지	팔죽고사
12월	그믐	삼베씨, 붉은 콩, 사람의 머리카락 우물에 던지기·벽온단차기

정월에 행한 대표적인 벽사의례로는 원일에 행한 ‘원일소발’ 정월 첫 묘일에 행한 ‘토사차기’ 정월 대보름에 행한 ‘액연날리기’ ‘답교’ 등을 들 수 있다.

원일소발(元日燒髮)⁶⁶⁾은 그 해 나쁜 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남녀가 1년간 빗질할 때 빠진 머리카락을 빗집에 모아두었다가 원일의 해질 무렵 문밖에서 태우는 것으로, 역귀들이 싫어하는 냄새를 활용하여 역귀들을 퇴치하고자 하는 양귀의 오감법에 입각한 방책이다. 원일소발의 습속은 현재 부산지역에 전승되고 있지는 않지만, 소발의 주력을 활용한 제의는 그대로 전승되어 소위 ‘귀신 단지달’이라 칭하는 정월 초닷새날에 귀신을 퇴치하기 위해 단지떡·팔죽고사와 더불어 소발의례가 행해지고 있다.⁶⁷⁾

66) ○日暮 焚一年所 蓄亂髮 (趙秀三, 『歲時記』端午, 『秋齋集』). 及暮燒退髮 所以辟鬼也 (權用正, 元日, 『漢陽歲時記』. 男女一年梳頭貯退髮 留梳函中必待元日黃昏 燒於門外以辟瘟 (洪錫謨, 元日, 『東國歲時記』). ○舊俗 每於除夕 或元朝薄暮 家家燒頭髮於門外 烟熏滿街 逐鬼消病云 卽華人爆竹之風 相同歟 稱之曰 머리카락타는날 (崔永年, [名節風俗] 『海東竹枝』).

67) 김승찬, 위의 책, 94면.

‘토사(兎絲차기)’⁶⁸⁾는 정월 첫 묘일에 새로 뽑은 무명실을 몸에 차고 다니면 재앙을 물리치고자 하는 것으로 최영년의 『해동죽지』에 의하면 토사는 일명 장수를 기원하는 의미로 달리 장명사(長命絲)라 지칭하기도 하였는데, 특히 씨가 7개 든 목화를 선별한 후 동쪽을 향하도록 하여 실을 자았다고 한다. 토끼는 설화에서 약고 민첩한 대상의 표본으로 상징되기도 하지만, 신화와 민간신앙에서는 달의 정령이자 달동물로서 장생불사(長生不死)의 이미지를 표상하고 있다.⁶⁹⁾ 토사를 일러 장명사가 칭하는 연유는 토끼에 대한 민간신앙적 관념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 양기가 왕성한 수(數)의 주력과 방향[동향]의 주력이 보강되어 방액의 주물로 활용되었다.

‘액연 날리기’⁷⁰⁾는 정초와 정월 보름사이에 주로 남아(男兒)들이 행하였던 것으로, 재액을 물리치기 위해 연에다 ‘액(厄)’·‘송액(送厄)’·‘소재도액(消災度厄)’·‘가구모생신액소멸(家口某生身厄消滅)’ 등을 쓴 후 연을 띄우고는 그 날 해질 무렵에 연줄을 끊어 멀리 날려 보내는 것을 말한다. 액연 날리기는 정월 보름날까지만 행하였던 것으로 보름날 이후 행할 때에는 ‘버들고리 백정’이라 하여 놀렸다 한

68) ○是日作錦絲佣之 曰兎絲祝長命也 (權用正, 卯日, 『漢陽歲時記』). ○卯日謂兎日 纒綿絲謂之兎絲 佩而禳災(洪錫謨, 卯日 『東國歲時記』). ○舊俗 正月上卯 纒出七核棉花 東向爲絲 佩之兒孫 謂之長命絲 名曰 ‘토실 (崔永年, 『名節風俗』 『海東竹枝』).

69) 한국문화상징사전편찬위원회, 『한국문화상징사전』, 동아출판사, 1992, 602-603면 참조.

70) ○小兒始斷紙鳶之戲 云送厄 (趙秀三, 『歲時記』 十五日, 『秋齋集』). ○至上元日 書厄字於鳶面 斷縷放之 上元後復事此戲 則人皆目之以柳器 白丁 (趙雲從, 『歲時記俗』 除夕, 『勉菴集』). ○是日書鳶面 作消災度厄等字 悉斷去不復持 曰復持者 桮棊匠屠牛丁也 (權用正, 十五日, 『漢陽歲時記』). ○兒童列書家口某生身厄消滅字於紙 鳶之背 任其所飛 日暮斷其線而放之 (洪錫謨, 上元 『東國歲時記』). 兒童以十月初 男放紙鳶 女佩木葫蘆三枚 至上元夜 鳶飄于空葫蘆捐于道 各繫一文錢 名曰 防厄 (金邁淳, 上元 『洙陽歲時記』).

다. 액연날리기는 ‘유사는 유사를 낚는다’는 유감주술관에 의거한 것으로 액이 실린 연을 멀리 날려 보냄으로써 자신에게 닥칠 액운 또한 멀리 사라질 것이라고 여기는 유감주술의 하나이다.

답교⁷¹⁾는 정월 대보름날 열 두 개의 돌다리를 밟으면 일 년 열 두 달의 재앙을 물리칠 수 뿐만 아니라 각기병을 예방하기 할 수 있다고 여겨 남녀노소가 모두 이 날 밤에 다리를 밟았다한다 답교는 고려시대부터 행해졌다하나, 조선시대에 들어서 더욱 성행하여 재상과 귀인으로부터 촌의 서민에 이르기까지 늙고 병든 사람 외에는 나오지 않는 이가 없었다 한다. 그리하여 신분에 따라 답교날을 제한하기도 하여 상민들은 십사일 밤, 양반들은 십오일 밤, 기생들은 십육일 밤에 행하게 하기도 하였다고 하며, 『해동죽지』에 의하며 성종 때에는 남녀가 뒤섞여 행하는 답교의 풍속이 문란하다 하여 남자들에게만 답교를 허용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답교의 풍속은 면면히 이어져 1930년대 까지도 전국적으로 성행하였다.⁷²⁾ 흥미로운 것은 근

71) ○望歲老農占月出 是夕 田家觀月出 卜水旱豐凶 及時遊客踏橋行 俗傳踏十二石橋 則可禳一年十二朔之災 (李安訥, ‘上元’, 『東岳先生續集』). ○踏橋舊戲 始出前朝 遺俗相傳 至近世最盛事 雖無稽 亦昇平一盛事也 法官峻禁 今絕不見 (高敬命, ‘用前韻 記上元踏橋’ 『霽峯集』 卷3, 詩). ○幾人踏盡遠近橋出於高麗除厄意 (金迥洙, [農家十二月俗詩]). ○舊俗 上元夜 踏十二橋 無脚氣云 士女雜還成風 成宗朝自官禁之 只有男子踏橋之風 今則無之 名曰 답교 (崔永年, [名節風俗] 正月, 『海東竹枝』). ○上元夜踏過十二橋 謂之度盡十二月厄自卿宰貴人 以至委巷庶民 除老病外 無不畢出(金邁淳, 上元, 『洙陽歲時記』).

72) ○유쾌하고 재미있고 흥만 한 것이 꼭 하난 남엇스니 이는 무엇인가, 이는 우리가 이저 바리지 안이하고 흐 | 마다 의례히 흐는 답교라는 녀이라 -중략- 더구나 밝은 달이 둥글고 둥극어 조금도 흠뎨업시 중련에 둥둥 스더잇스니 한번 답교 흐지 안이하고 었지 흐리요 그러치만은 남의 모양는 버션 등은 부드 | 밟지마시오 (매일신보] 1915. 2. 28). ○정월보름날에 다리밟는 노리 -중략- 이것은 조선의 처처에서 볼 수 있는 풍속이다 이날 밤에 다리를 밟으면 일년 중에 다리가 건강하여 다릿병에 걸리는 일이 업고 또 흥사가 업다 하여 남녀노소 업시 다리밟기를 몹시 한다. 미신에서 출발한 일이나 밝은 달만 다리밟기 하는 남녀노소의 일대가 교한 월색 아래로 오고가고 하는 그 광경도 조선 정

대 문물이 들어온 이후부터 답교의 방식도 변형되어 자동차나 전철을 타고 다리를 건너기도 하였다 한다.⁷³⁾

삼월에 행하는 대표적인 세시벽사의례로 상사일(上巳日)에 행하는 계음(禊飲)을 들 수 있다. 계음이란 물가에서 더러움과 재액을 씻고 회음(會飲)으로써 화전놀이를 가지는 것을 말하는데, 계음의 전통은 유래가 깊어 [가락국기]에 이 날 김해의 북쪽 구지에서 계육의례를 행하였다 기록하고 있다. 삼월에 행한 발제(汙祭) 수계(水禊)의 전통은 조선시대에 접어들면서 제의적 전승력이 약화⁷⁴⁾되었는데, 조선시대에 들어서면 이 날을 답청절(踏青節)이라 하여 교외의 들로 나가 꽃술과 화전으로 풍류를 즐겼다 한다.

단오에 행한 대표적인 벽사의례로는 단오부적과 더불어 벽은(辟瘟)을 도모하기 위해 창포의 벽사력을 활용한 ‘단오장’ 풍습을 들 수 있다. 창포의 벽사력을 활용한 단오장 풍습에 대한 문헌자료는 고려시대⁷⁵⁾부터 나타나나, 조선시대에 들어서 단오장은 보다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관련 문헌자료들에 나타난 단오장의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창포로 띠를 만들어 땅에 닿도록 드리우기도 하며’⁷⁶⁾ 노리개처럼 ‘향기 나는 창포를 치마에 차기도 하며’⁷⁷⁾창포 잎

조를 살리는 아름다운 일종의 하나일 것이다. 다리봄기는 지금도 개성이 가장 성하다는가 (『삼천리』 1932. 12)

73) 구습에 의하면 십사일 밤은 상민의 답교날이요 십오일 밤은 양반의 답교날이요 십륙일은 기생의 답교날이며 답교는 광교(廣橋)가 중심이 되었으나 요사히 답교는 『테모크라시』 화하여 너나 업시 한 날에 답교를 하며 다리도 개화를 하여 광교보다도 돈량이나 있는 사람들은 자동차고 그러치 아니하면 던차로 한강털교를 차져 가며 더욱히 『수직성이 든 아해가 있는 집안에서는 『어부심』을 싸가지고 한강으로 차져 나아가는 이가 만흔 것이다. (『동아일보』, 1924, 2, 18).

74) 조선시대 삼월 삼일 계음에 대한 문헌자료로는 柳方善의 ‘三月三日’ (泰齋先生文集 卷一) 과 金宗直의 ‘三月三日 與晉州判官崔榮 朴盈德 吾仲容兄 兪克己 都生員 鄭生員希韶等 爲禊飲’ (『佔畢齋集』 卷七) 등이 있다.

75) 愍持菰佩酒壺來 菖歎濃香自滿杯 (元天錫, ‘端午偶吟’, 『耘谷行錄』 卷五).

76) 少時每喜端午來 新衣白紵襯身裁 菖蒲作帶垂着地 狂踏秋千日百回(高敬命, ‘端陽

을 넣어 끓인 물에 머리를 감고 창포 뿌리는 비녀처럼 깎은 다음 수(壽)나 복(福)자를 새기고 그 끝에 연지에 머리에 꽂거나⁷⁸⁾ 허리춤에 차기도⁷⁹⁾하며, 머리에 창포 잎을 꽂거나⁸⁰⁾ 연지를 바르지 않은 창포뿌리 비녀를 머리에 꽂고 대신 얼굴에 주사를 찍기도 하였다.⁸¹⁾

유월에 행한 벽사의례로는 유두음과 유두국차기 그리고 봉선화 꽃물들이기가 있다. 민간에서는 6월을 액달 혹은 썩은 달이라고 하여 이 달에는 혼인날을 잡지 않고 앓은 방식도 읊기지 않는다고 해서 이사하는 것도 꺼린다.

유월 유두에 행하는 계음은 달리 유두음이라 하였다. 유두음은 삼월 상사일의 계육과 달리 중국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우리 고유의 벽사의례라 할 수 있다.⁸²⁾ 유두음은 동쪽으로 흐르는 물에 머리를 감거나 목욕을 함으로써 상서롭지 못한 것들을 물리치고 복을 구하는 불제를 거행한 다음 사람들이 보여 풍류를 즐기는 것으로 그 연원은 고려시대⁸³⁾로 소급된다. 유두음은 고려후기까지 제의적 전승이 지속

日感懷, 『齊峯集』 卷一, 詩).

- 77) 香蒲裙帶此村女 碧樹鞦韆何處兒 (李明漢, ‘天中日小軒口號’, 『白洲集』, 卷二, 七言絕句).
- 78) ○令節屆天中 粽艾方言異 釵蒲土俗同 (李安訥, ‘端午’, 『東岳先生集』, 卷十五, 北竄錄). ○舊俗 端午 浴 菖蒲湯 挿菖蒲簪 兒娘皆着新衣 名之曰 단오빔 (崔永年, [名節風俗] 端午, 『海東竹枝』). ○削菖蒲根 作簪 或爲壽福字塗臙脂於其端 遍挿頭髮 以辟瘟 號端午粧 (洪錫謨, 端午, 『東國歲時記』).
- 79) 男女卽角者 採菖蒲 煎湯洗沐 取根白 四五寸 洗消令淨 朱塗其端 或挿或佩 (金邁淳, 端午, 『洙陽歲時記』).
- 80) 晨興兒女挿菖蒲 閭巷家縣辟病符 (申欽, ‘端午 過街上記日’, 『象村稿』, 卷十八, 七言絕句).
- 81) 簪“頭아菖蒲點朱砂 (金迥洙, [農家十二月俗詩]).
- 82) 未能免俗猶浮髮 任送霜蓬污鏡流 (李奎報, 『東國李相國集』 後集 卷四, 六月十五日池上).
- 83) 『高麗史』 卷20 世家20, 明宗 15年 6月 癸丑日, 『高麗史』 卷25 世家25, 元宗 元年 6月 庚戌日, 李奎報, 『東國李相國集』 後集 卷 4, 6月 15日 池上條, 李集, 遁村雜詠』 6月15日書懷, 6月15日 呈圃隱, 李穡, 『牧隱先生文集』 卷18 流

되었으나, 조선시대에 접어들면서 제의적 전승은 더 이상 지속되지는 않았다.⁸⁴⁾ 대신 6월 복날 부녀자들이 약수에 머리를 감고 풍과 부스럼을 예방하기 위해 물맞이를 행하거나⁸⁵⁾, 시냇물에 목욕한 뒤 음주가무를 즐겼는데,⁸⁶⁾ 전자를 ‘물맞는다’라 지칭하였으며, 후자를 ‘척양’이라 지칭하였다. 유두절 풍속의 변화는 부산지역에서도 예외가 아니어서 부산지역에서는 유두날 시냇물에 머리를 감으면 머릿결이 좋아진다고 속신하여 시냇물에 머리를 감았으며, 여름에 땀띠 나지 말고 건강하라고 약수터에 가서 물을 먹고 목욕하거나 폭포에 가서 물을 맞는 풍속이 널리 행해졌다.⁸⁷⁾

유두국 차기란 밀가루로 작은 구슬 모양을 만든 수단(水團)에 오색으로 물들이거나 붉은 점을 찍은 다음 실을 꿰어 엮은 것을 유두국(流頭麪)이라고 하는데, 유두일에 이것을 세 개씩 포개어 색실로 매달아 몸에 차거나 문짝에 걸어 악귀를 쫓았다⁸⁸⁾한다.

한편, 봉선화 꽃물들이기는 부산지역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유월 벽사의례의 하나로 부녀자들이 악귀를 쫓기 위해 손톱에 봉선화 꽃물을 들였다.⁸⁹⁾ 조선시대 봉선화 꽃물들이기는 주로 곡비(哭婢)들이 죽음의 기운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일환으로 행해졌던 습속인데, 부산지역에서는 일반 부녀자들이 질병과 재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붉은 색의 벽사력을 활용한 봉선화 꽃물들이기를 널리 행하여 왔다.

頭日三詠 · · · 卷24 六月十五日條

- 84) 被髮東川事已悠 年年佳節是流頭 (成俔, 『流頭日 食水團餅』, 『虛百堂詩集』 卷 8, 詩).
 85) 舊俗 六月伏日 婦人沐髮於藥水 古則玉溜洞 近則貞陵 消風祛癘 年年爲例 (崔永年, [名節風俗] 六月, 『海東竹枝』).
 86) 是日 胃之流頭 僧家沐髮剃頭故也 人皆殺鷄烹狗 臨溪澡浴 盡日酣呼 云滌腸 (趙秀三, 『歲時記』 六月, 『秋齋集』).
 87) 김승찬, 위의 책, 142-143면 참조.
 88) 取麥屑爲水團 點朱而絲貫之日流頭麪也 (權用正, 『漢陽歲時記』 六月條).
 89) 김승찬, 위의 책, 143면.

구월 구월 중앙절에 행한 세시벽사의례로는 높은 산에 올라 모자를 떨어뜨리는 등고 낙모와 수유나 국화로 만든 향낭 주머니를 만들어 차기, 그리고 수유가지 머리 꽃기 등이 있다. 『풍토기風土記』에 의하면 9월 9일은 그 달이 12월 중에 무역[無射]에 해당하고, 수가 9에 해당하기 때문에 세속에서 이날을 숭상하여 수유가지를 머리에 꽂음으로써 나쁜 기운을 몰아내고 첫추위를 막았다고 하고, 또한 선인 비방장이 환경에게 9일에 등고하여 국화주를 마시고 수유주머니를 차고서 재액을 피하라고 가르쳐 주었다고도 하는데⁹⁰⁾,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부터 세시벽사의례로 수용되어 널리 행해졌다.⁹¹⁾ 조선시대에 들어서면 등고 낙모의 풍속은 약화된 반면 수유가지를 머리에 꽂거나 수유로 향낭주머니를 활용한 액막이는 여전히 지속되었다.⁹²⁾

한편, 중앙절에는 국화주를 마시는데, 이에 대해 “국화주를 마시면 백가지 질병을 막을 수 있다.”⁹³⁾라 하여 국화주가 각종 질병을 미연에 막고자하는 액막이의 일환으로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⁹⁴⁾

동지에는 팔죽을 집안 곳곳에 뿌려 방액하는 팔죽 고사의 목적에 대해 [한양세시기]에는 ‘구여귀(驅厲鬼)’,⁹⁵⁾[동국세시기]에는 ‘제불상

90) 李珣, 『節序策』 『栗谷先生全書拾遺』, 卷5, 雜著2. 李植 ‘答倭人問目’ 『澤堂先生別集』 卷1. 한편, 『太平廣記』에는 중국 후한시대 여남 사람 환경이 은사 비장방을 따라 노니는데 비방장이 말하기를 ‘9월 9일 여남 땅에 큰 재앙이 있을 것이니 집안사람들을 거느리고 주머니를 만들어 수유를 넣어 팔에 메고 산에 올라가 국화주를 먹으면 이번의 화를 면할 수 있다’ 고 하였다. 환경이 9월 9일 높은 산에 올라갔다가 저녁 때 집에 돌아와 보니 닭, 개, 양 등이 모두 죽어 있었다. 비장방이 소식을 듣고 그것들이 당신을 대신해 죽은 것이라고 하였다. 그 뒤 세상 남자들이 이 날이 되면 산에 올라가 술을 마시고 여자들은 수유를 넣은 주머니를 찼다고 한다라는 기록이 있다.

91) 未識登高更何處 龍山落帽想豪狂 (李穡, 『牧隱先生文集』 卷25, 重九已近).

92) 重陽何人登高去 醉插茱萸賞楓 (金迥洙, [農家十二月俗詩]).

93) 李好閔, ‘重陽日 示柳氏兒輩 -壬子秋’, 『五峯先生集』, 卷 6.

94) 佩茱菊而度厄 登高之仙術荒唐 (尹善道, ‘對名節策 并題 庚午’, 『孤山遺稿』 卷6, 別集).

(除不祥)', [경도잡지]에는 '벽악(辟惡)'이라 하였으며⁹⁶⁾ [열양세시기]에서는 '벽귀(辟鬼)'라 하였다.⁹⁷⁾ [해동죽지] 속악유희조에서는 '불항불상위아세축복(祓降不祥爲亞歲祝福)'이라 하였다.⁹⁸⁾

팔죽을 동지의 절식으로 즐겼던 기록은 고려시대에 나타나나⁹⁹⁾, 재액을 소멸하기 위한 벽사의례를 행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하지 않다. 다만 문헌에 동짓날 팔죽은 먹는 연유에 대해 '사악한 기운 썰고 뱃속을 윤택하게 하네.'¹⁰⁰⁾라 하여 몸속의 사악한 기운을 제거해 질병을 막고자한 축역의 의미가 있었음을 알 수 있을 뿐이다. 고려시대 팔죽은 동지 외에 복일(伏日)도 널리 시식하였는데, 그 이유는 팔죽에 여역을 퇴치할 수 있는 주력이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다.¹⁰¹⁾ 동짓날과 유월 복일의 팔죽시식은 조선시대로까지 이어졌는데¹⁰²⁾, 조선시대에는 이에 국한되지 않고 정월 보름 전에도 팔죽을 먹어 액막이를 하기도 하였다.¹⁰³⁾ 이를 통해 볼 때 팔죽은 여역을 쫓기 위한 액막이로 출발하였던 것이¹⁰⁴⁾ 이후 팔죽의 주력에 대한 관념이 강화되면서 새해

95) 冬至 作赤豆粥 以薦廟 又粥發門扇 云可驅厲鬼 (權用正, 『漢陽歲時記』 十一月條).

96) 赤豆粥用糯米粉爲鳥卵狀 投其中 和蜜食之 是日潑豆粥於門板 以辟惡 (柳得恭, 『京都雜志』 冬至條).

97) 赤豆粥 辟鬼昉於中華 (金邁淳, 『洙陽歲時記』 冬至條).

98) 舊俗 冬至日 煮赤豆粥 塗降不祥 爲亞歲祝福之事 名之曰 동지팥죽. 赤豆家家煮粥香 潑來門戶替符籙 今朝逐盡山臊鬼 冬至陽生迓吉祥 (崔永年, [名節風俗] 十一月, 『海東竹枝』).

99) ○未厭豆粥鶴髮親 流離旅次潛傷神 (『東文選』 卷八, 冬至). ○今年比似前年好 豆粥如酥翠鉢深 (李穡, 『牧隱先生文集』 卷十, 冬至) ○冬至家家作豆糜 欲識陽生何處是 (卞季良 『春亭先生文集』 卷一, 冬至)

100) 冬至鄉風豆粥濃 盈盈鉢色浮空 調來崖密流喉吻 洗盡陰邪腹中. (李穡, 『牧隱先生文集』 卷20, 豆粥)

101) 火雲蒸日熾如焚 瀋汗交流兩眼昏 直把豆湯消暑毒 不如松下水流門 (李穡, 『牧隱先生文集』 卷17, 豆粥).

102) ○煮豆粥 以穰厲 (金邁淳, 『洙陽歲時記』 伏日條). ○煮赤小豆粥 以爲食 三伏皆如之 (洪錫謨, 三伏, 『東國歲時記』).

103) 2望前煮赤小豆粥食之 (洪錫謨 上元, 『東國歲時記』).

를 맞이하는 동지의 팔죽고사로 확대 시행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선달그믐날에는 온역과 여역을 막기 위해 벽온단(辟瘟丹)으로 향낭을 만들어 몸에 지니기거나,¹⁰⁵⁾삼베 씨와 붉은 콩, 사람의 머리카락을 우물 속에 던진다.¹⁰⁶⁾벽온단은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온역을 퇴치할 수 있는 주력이 깃든 신성한 향으로 여겨졌던 것으로 의타법에 의거한 접촉주술 의례 중 하나이다. 반면, 여역을 퇴치하기 위한 방법은 의타법과 양귀법 및 대속법이 혼용된 주술의례로 직성풀이나 삼재풀이 등 재액풀이의 방액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하겠다.

104) ○冬至豆粥 以辟瘟之具而不薦望日香飯 以飼鳥之物而不薦 何如 初出於辟瘟飼鳥而遂以成俗 (鄭述, ‘答任卓爾’ 『寒岡先生文集』 卷7, 答問. ○鳥卵稷心赤豆粥 非徒除疫味亦佳 (金迥洙, [農家十二月俗詩])).

105) 內醫院製辟瘟丹進御 -中略- 閭巷間或盛絳囊佩之 (金邁淳, 『洙陽歲時記』 除夕條).

106) 麻子赤豆與人髮 投諸井中瘟不嬰 (金迥洙, [農家十二月俗詩]).